

일부 치위생 및 간호 전공 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 특성과 의식

이지영[†] · 정미경

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1. 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우리 사회의 큰 관심과 논의가 뜨거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것이 인공지능, 로봇기술뿐만 아니라 생명과학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의학과 생명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안전성과 윤리성 두 가지 측면의 균형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건강한 윤리에 기초한 발전을 우리 모두가 원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여러 가지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켜 생명이 선택의 대상이 되었고 조작의 객체가 되어 결국 인간생명 경시 풍조가 팽배하게 되었다¹⁾. 생명을 다루는 의료관련 직종은 생명윤리에 관한 윤리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도덕적 가치관의 함양이 필수적이다. 생명윤리는 배아줄기세포연구, 유전자검사, 장기이식, 시험관아기, 임상시험 등 첨단과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며 의료윤리는 연명치료 중단, 한정된 자원의 분배 등 임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들을 다룬다. 전문직 윤리는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로 환자에게 진실 말하기, 환자의 비밀 및 사생활 보호, 환자의 이익 우선하기 등이 속한다²⁾.

치과의료 윤리학(dental ethics)은 생명의료윤리(biomedical ethics)의 한 분야³⁾로 이상적인 치과의료 윤리교육을 위해서는 도덕교육과 생명윤리, 전문직 윤리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치과위생사는 임상가, 교육자, 행정 및 관리자·지지자, 연구자의 역할을 하며 환자평가, 치위생진단, 계획, 중재, 평가라는 치위생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및 개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가로서 보건활동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많은 대중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⁴⁾.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는 국민이 치과위생사에게 안심하고 질 높은 구강보건서비스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와 역할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초중등학교에서 생명윤리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2007년 도덕교육과정 개정이 있는 이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생

접수일: 2018년 11월 1일 최종수정일: 2018년 11월 15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1월 30일

교신저자: 이지영, (52655) 경남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Tel: 055-740-1835, Fax: 0303-0008-1840

E-mail: myolan@hanmail.net

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자연보호와 의료윤리에 관해서 다루고 있으나 인간생명존중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교에서도 생명윤리를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였으나 그러한 교과목이 선택과목이 되거나 전혀 개설되지 않을 경우에 대학생들은 생명윤리교육을 받을 기회를 학교교육에서 받지 못하고 있다⁵⁾. 윤리적 성향은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개념⁶⁾을 말하며, 보건의료인의 윤리적 성향은 의사결정에 따른 직무행동으로 알 수 있다. 생명의료윤리도 구체적인 행동을 가져오려면 윤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며 올바르게 알고 있을 때 전문가답게 만들어주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과 정보교환을 통해 의료윤리에 대한 올바른 기초를 쌓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치위생과 학생들은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환자관리 환경에서 어떤 행위가 윤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⁷⁾ 올바른 윤리의식의 확립과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김 등⁷⁾, 안 등⁸⁾, 김과 최⁹⁾가 생명윤리의식에 대하여 연구 보고한 바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윤리의식을 파악하고, 치위생과와 간호학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윤리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치위생과 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7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경남 진주지역에 소재한 J보건대학의 치위생과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고, 정보 활용에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작성은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 후 회수된 286부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권¹⁰⁾의 설문지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과 생명의료윤리관련 특성 10문항, 생명의료윤리 인식 5문항,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5개영역 29문항으로 인공임신중절 6문항, 인락사 7문항, 장기이식 5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향 6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5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의 5가지 영역은 각 문항을 4점 등간척도로 '찬성' 4점에서 '반대' 1점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의 Cronbach's alpha 값은 0.61이었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의 전공별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χ^2 -test)을 이용하였다. 치위생과와 간호학과 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문항의 총합을 계산한 뒤, t-test 및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등분산 검정은 Levene 통계량을 사용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변수들의 사후분석은 Fisher LSD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명의료윤리특성 및 의식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전공은 치위생 55.2%, 간호 44.8%로 나타났고 남자 8.7%, 여

자가 91.3%로 많았으며 학년은 2학년 47.9%, 1학년 40.9%, 3학년 11.2% 순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70.2%가 가장 많았고, 불교 16.1%, 기독교 10.1%, 천주교 2.8%였다. 형제·자매 수는 1명이 58.0%, 2명 25.2%, 3명 10.5%, 외동 6.3%였다. 헌혈경험은 5회 미만 81.8%로 가장 많았으며 10회 미만은 15.7%였다. 장기이식서약을 한 적 없다 39.5%, 할 의향이 있다 35.7%, 관심 없다 23.1%, 한 적 있다 1.7%였다. 전공에 대하여 87.1%가 만족하였으며 임상실습의 경험은 38.1%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특성	구분	치위생	간호	합계
Gender	남자	4(2.5)	21(16.4)	25(8.7)
	여자	154(97.5)	107(83.6)	261(91.3)
Grade	1학년	65(41.1)	52(40.6)	117(40.9)
	2학년	61(38.6)	76(59.4)	137(47.9)
	3학년	32(20.3)	0(0)	32(11.2)
Religion	기독교	17(10.8)	12(9.4)	29(10.1)
	천주교	6(3.8)	2(1.6)	8(2.8)
	불교	25(15.8)	21(16.4)	46(16.1)
	무교	110(69.6)	90(70.3)	201(70.2)
	기타	0(0)	3(2.4)	2(0.7)
형제·자매 수	외동	9(5.7)	9(7.0)	18(6.3)
	1명	90(57.0)	76(59.4)	166(58.0)
	2명	40(25.3)	32(25.0)	72(25.2)
	3명 이상	19(12.0)	11(8.6)	30(10.5)
헌혈경험	5회 미만	127(80.4)	107(83.6)	234(81.8)
	5회 이상~10회 미만	29(18.4)	16(12.5)	45(15.7)
	10회 이상~15회 미만	2(1.3)	3(2.3)	5(1.7)
	15회 이상	0(0)	2(1.6)	2(0.7)
장기이식서약	한 적이 있다	4(2.5)	1(0.8)	5(1.7)
	할 의향이 있다	40(25.3)	62(48.4)	102(35.7)
	한 적이 없다	72(45.6)	41(32.0)	113(39.5)
	관심 없다	42(26.6)	24(18.8)	66(23.1)
전공 만족도	매우 만족	12(7.6)	13(10.2)	25(8.7)
	만족	139(88.0)	110(85.9)	249(87.1)
	불만족	6(3.8)	5(3.9)	11(3.8)
	매우 불만족	1(0.6)	0(0)	1(0.3)
임상실습경험	유	93(58.9)	16(12.5)	109(38.1)
	무	65(41.1)	112(87.5)	177(61.9)
전체		158(55.2)	128(44.8)	286(100.0)

3.2. 연구대상자의 전공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전공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은 표2와 같다. 윤리적 가치관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가 치위생 67.7%, 간호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 < .05$), 생명의료윤리 교육경험은 치위생 69.6%, 간호 53.9%로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p < .01$).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시기는 고등학교 때

가 간호 35.2%, 치위생 25.9%로 가장 높았다($p < .001$). 생명의료윤리 관련 정보 습득처에서는 치위생은 학교 수업이 32.9%, 간호는 인터넷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p < .01$), 생명의료윤리 갈등경험에서는 간호에서 있다가 59.4%, 치위생은 없다가 58.2%로 가장 높았고($p < .001$), 교육 참여의사는 간호 82.8%, 치위생 72.2%가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Table 2.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by major

특성	구분	치위생	간호	χ^2	p
윤리적 가치관	매우 확고함	20(12.7)	23(18)	9.398	0.024*
	가끔 혼동됨	28(17.7)	38(29.7)		
	상황에 따라 바뀜	107(67.7)	66(51.6)		
	현실에 맞지 않음	3(1.9)	1(0.8)		
생명의료윤리 교육경험	유	48(30.4)	59(46.1)	7.457	0.007**
	무	110(69.6)	69(53.9)		
생명의료윤리 교육시기	무응답	107(67.7)	67(52.3)	17.753	0.001***
	초등학교	0(0)	3(2.3)		
	중학교	9(5.7)	4(3.1)		
	고등학교	41(25.9)	45(35.2)		
생명의료윤리 정보지식 습득처	TV	51(32.3)	24(18.8)	14.696	0.005**
	책, 신문, 잡지	5(3.2)	11(8.6)		
	학교수업	52(32.9)	33(25.8)		
	인터넷	48(30.4)	59(46.1)		
	기타	2(1.3)	1(0.8)		
생명의료윤리교육의 적절성	매우 충분함	1(0.6)	1(0.8)	4.377	0.223
	충분함	38(24.1)	44(34.4)		
	충분하지 않음	105(66.5)	70(54.7)		
	매우 충분하지 않음	14(8.9)	13(10.2)		
생명의료윤리 중요도	매우 중요함	36(22.8)	31(24.2)	4.337	0.227
	중요함	116(73.4)	87(68)		
	별로 중요하지 않음	2(1.3)	7(5.5)		
	관심 없음	4(2.5)	3(2.3)		
생명의료윤리 갈등경험	유	53(33.5)	76(59.4)	19.290	0.000***
	무	92(58.2)	47(36.7)		
	관심 없음	13(8.2)	5(3.9)		
교육 참여 의사	유	114(72.2)	106(82.8)	6.296	0.043*
	무	22(13.9)	15(11.7)		
	관심 없음	22(13.9)	7(5.5)		
미래 윤리문제 증가	예	131(82.9)	111(86.7)	4.495	0.106
	아니오	23(14.6)	10(7.8)		
	관심 없음	4(2.5)	7(5.5)		
교육의 필요성	예	150(94.9)	121(94.5)	0.293	0.864
	아니오	2(1.3)	1(0.8)		
	관심 없음	6(3.8)	6(4.7)		

* $p < 0.05$ ** $p < 0.01$ *** $p < 0.001$

3.3. 연구대상자의 전공별 생명의료윤리 인식

연구대상자의 전공별 생명의료윤리 인식은 표3과 같다. 전체 생명의료윤리 인식은 치위생 전공에서 ‘매우 잘 알고 있음’ 1.3%, ‘조금 알고 있음’ 37.3%로 간호 전공에서 매우 잘 알고 있음 3.1%, 조금 알고 있음 48.4%보다 인식이 낮게 나타났지만 생명의료윤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음’에서는 치위생 57.0%, 간호 43.0%로 치위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인식에서는 ‘조금 알고 있음’ 치위생 43.7% 간호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락사에 대한 인식에서도 조금 알고 있

음이 치위생 51.3%, 간호 55.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장기이식에서는 치위생 전공은 ‘들어본적 있음’ 45.6%, 간호 전공은 ‘조금 알고 있음’ 53.1%로 가장 높았고 뇌사에 대한 인식에서도 치위생 전공은 ‘들어본적 있음’ 47.5%, 간호 전공은 ‘조금 알고 있음’ 50.8%로 가장 높았다. 인간생명공학은 ‘들어본적 있음’에서 치위생 57.0%, 간호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Table 3. Biomedical ethics awareness by major

특성	구분	치위생	간호	χ^2	p*
생명의료윤리인식	매우 잘 알고 있음	2(1.3)	4(3.1)	6.110	0.106
	조금 알고 있음	59(37.3)	62(48.4)		
	들어본 적 있음	90(57.0)	55(43.0)		
	관심 없음	7(4.4)	7(5.5)		
인공임신중절인식	매우 잘 알고 있음	10(6.3)	12(9.4)	4.035	0.258
	조금 알고 있음	69(43.7)	65(50.8)		
	들어본 적 있음	65(41.1)	45(35.1)		
	관심 없음	14(8.9)	6(4.7)		
안락사	매우 잘 알고 있음	13(8.2)	19(14.8)	5.892	0.117
	조금 알고 있음	81(51.3)	71(55.5)		
	들어본 적 있음	60(38.0)	34(26.6)		
	관심 없음	4(2.5)	4(3.1)		
장기이식	매우 잘 알고 있음	9(5.7)	9(7.0)	4.195	0.241
	조금 알고 있음	67(42.4)	68(53.1)		
	들어본 적 있음	72(45.6)	44(34.4)		
	관심 없음	10(6.3)	7(5.5)		
뇌사	매우 잘 알고 있음	7(4.4)	10(7.8)	6.812	0.078
	조금 알고 있음	62(39.2)	65(50.8)		
	들어본 적 있음	75(47.5)	46(35.9)		
	관심 없음	14(8.9)	7(5.5)		
인간생명공학	매우 잘 알고 있음	2(1.3)	2(1.6)	3.253	0.354
	조금 알고 있음	31(19.6)	33(25.8)		
	들어본 적 있음	90(57.0)	74(57.8)		
	관심 없음	35(22.1)	19(14.8)		

3.4. 연구대상자의 전공별 생명의료윤리 의식 차이

연구대상자의 전공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차이는 표4와 같다. 전체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치위생 2.73 ± 0.17 점으로 간호 2.65 ± 0.20 점 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3.674$, $p = 0.000$). 하위영역별로는 인공임신중절($t = -3.772$, $p = 0.000$)과 인간생명공학($t = -2.505$, $p = 0.013$)에 대한 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명의료윤리 특성 및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명의료윤리 특성, 생명의료윤리 의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5와 같다.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장기이식의향($r = .299$), 윤리적 가치관($r = .122$), 생명의료 윤리교육 경험($r = .356$)과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생명의료 윤리교육 경험이 0.356으로 생명의료윤리 교육경험을 가질수록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Table 4.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by major

구분	치위생	간호	t	p
	M(SD)	M(SD)		
인공임신중절	2.88(0.46)	2.67(0.48)	-3.772	0.000***
안락사	2.52(0.40)	2.44(0.38)	-1.708	0.089
장기이식	2.99(0.36)	2.97(0.37)	-0.365	0.175
뇌사	2.78(0.40)	2.83(0.33)	0.943	0.346
인간생명공학	2.55(0.39)	2.44(0.39)	-2.505	0.013*
total	2.73(0.17)	2.65(0.20)	-3.674	0.000***

* $p < 0.05$ *** $p < 0.0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biomedical ethics characteristics,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전공	학년	종교	장기이식의향	임상실습경험	윤리적가치관	생명의료 윤리교육경험	생명의료윤리 의식
전공	1							
학년	.149*	1						
종교	-.033	.071	1					
장기이식의향	.172**	.062	.101	1				
임상실습경험	-.475**	-.595**	.011	-.095	1			
윤리적가치관	.155**	.056	.102	.111	-.032	1		
생명의료윤리 교육경험	.161**	.123*	-.018	.134*	-.131*	-.042	1	
생명의료윤리 의식	.111	.014	-.028	.219**	-.051	.122*	.356**	1

* $p < 0.05$ ** $p < 0.01$

4. 고찰

현대 의료환경은 생명과학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등 의료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생명의료윤리는 인간다운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며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는 의료인 뿐 아니라 보건의료 종사자에게도 예외일 수 없으며 국민구강건강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과 의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치과 위생사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바람직한 의료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 및 간호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 특성과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파악하여 생명의료 윤리 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였다.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은 치위생 전공보다 간호 전공 학생이 윤리적 가치관($\chi^2=9.398, p=0.024$), 생명의료윤리 교육경험($\chi^2=7.457, p=0.007$), 생명의료윤리 갈등경험($\chi^2=19.290, p=0.000$)과 교육참여 의사($\chi^2=6.296, p=0.043$)가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윤리적 가치관이란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여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으로¹¹⁾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법적 책임,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등 새로운 의료윤리 문제의 대두는 보건의료인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관을 요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 전공 학생은 ‘매우 확고함’ 12.7%, 간호 전공의 경우 18%로 치위생 전공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 확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윤의 연구¹²⁾에서 치위생계열 학생의 18.6%가 ‘매우 확고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의 간호전공 응답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가끔 혼동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치위생 67.7%, 간호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학생의 경우 윤리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로 윤리적 가치관이 확고한 경우

보다 상황에 따라 바뀌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¹³⁾.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치위생 94.9%, 간호 94.5%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참여 유무는 치위생 72.2%, 간호 80.8%의 학생이 참여한다고 응답하여 우선적으로 생명의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명존중 태도의 함양과 향후 다양한 생명윤리문제에 대해 올바른 태도와 합리적 판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⁴⁾. 생명의료윤리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는 치위생 44.8%, 간호 55.1%로 조사되어 교육경험의 차이가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윤리가치관이 낮은 구체적인 원인 파악의 한계점이 있었다.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성은 단순한 기술적 측면에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치과위생사들의 직업적 소명의식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의식은 전문적인 책임의식과 올바른 윤리적 성향의 정립을 통해 자신의 직무에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때 발현될 수 있다고 한 바¹⁵⁾ 향후 윤리의식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통한 윤리교육의 효과성과 직업적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가장 많았으며 생명의료윤리 관련 정보 습득처는 치위생은 학교수업 32.9%, 간호 인터넷 46.1%로 조사되었다. 이는 단편적인 지식이 획득될 가능성이 큰 대중매체를 통한 지식습득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한 학교교육 과정을 통한 생명윤리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¹⁶⁾ 더욱이 보건계열 전공학생들에게는 대학 교육과정 내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윤리교육을 통한 생명의료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생명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강의방식에 비해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 시청각 교육을 가미하여 윤리교육이 이루어진 경우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더 높고¹³⁾ 사례제시 및 토론으로 진행한 경우 참여도와 강의추천의도가 높아¹⁷⁾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인식정도는 치위생 전공에서 ‘매우 잘 알고 있음’ 1.3%, ‘조금 알고 있음’ 37.3%로 간호 전공에서 매우 잘 알고 있음 3.1%, 조금 알고 있음 48.4% 보다 인식이 낮게 나타났지만 생명의료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음’에서는 치위생 57.0%, 간호 43.0%로 치위생 전공에서 높게 나타났다. 윤의 연구¹¹⁾에서 치위생 계열 학생의 48.5%가 생명의료윤리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결과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매우 잘 알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전공별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4점 만점에 치위생 2.73 ± 0.17 점으로 간호 2.65 ± 0.20 점 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3.674, p = 0.000$).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조사¹⁸⁾에서 2.69 ± 0.20 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 ± 0.20 로 조사된 김¹⁹⁾의 연구 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윤의 연구¹¹⁾에서 치위생계열 2.87 ± 0.29 , 비치위생계열 2.82 ± 0.27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고, 심의 연구¹⁴⁾에서는 대학생 2.74 ± 0.26 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대부분의 간호대학이나 학과가 간호학개론, 생명의료 또는 간호윤리 등의 관련 교과목 명칭으로 정규 간호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생명의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¹³⁾ 치위생 전공보다 높은 의식 수준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경험과 임상실습기간이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비²⁰⁾ 본 연구에서 간호 전공 학생의 학년 분포가 1, 2학년으로 치위생 전공 학생 58.9%가 임상실습을 경험한 것에 비해 간호 12.5% 수준으로 임상실습 경험이 적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생명의료윤리 의식 하위영역 별로는 치위생 전공의 경우 장기이식, 인공임신중절, 뇌사, 인간생명공학, 안락사 순으로 의식 수준이 높았고, 간호 전공도 장기이식의 의식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뇌사, 인공임신중절 순이었으며 안락사와 인간생명공학은 동일하였다. 심의 연구¹⁴⁾에서 가장 높은 영역은 장기이

식으로 동일하였으나 윤¹¹⁾은 치위생계열은 장기이식, 비치위생계열은 안락사가 가장 낮아 연구마다 결과가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명의료윤리의식 세부영역인 연구대상자의 특성, 지역, 개설 교과목이나 교육 방법과 임상실습 등에 따라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나 비중이 달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¹³⁾.

본 연구에서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장기이식의향($r = .299$), 윤리적 가치관($r = .122$), 생명의료윤리 교육 경험($r = .356$)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무엇보다 생명의료윤리 교육경험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생명의료윤리 교육경험에 따라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아지므로 보건계열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도덕적 자아개념 형성이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교육¹⁹⁾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배양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과위생학에서도 높은 수준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전문성, 윤리적 의식을 함양한 치과위생사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에만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통한 윤리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¹⁵⁾.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치위생과 간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추출하였고,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으로 자기보고 척도에 의한 조사연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해석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나 보건계열 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및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 및 간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 특성과 의식수준을 파악하여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경남소재 J보건대학의 치위생과 158명, 간호학과 128

명을 대상으로 2017년 0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286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위생과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평균점수는 2.73점, 간호학과 학생은 2.6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
2. 두 그룹의 생명의료윤리 하위영역의 의식은 장기이식에 대한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락사에 대한 의식은 낮게 나타났다.
3. 전공별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은 윤리적가치관 ($p < .05$), 생명의료윤리 교육경험($p < .01$), 생명의료윤리 교육시기($p < .001$), 생명의료윤리 정보 지식 습득처($p < .01$), 생명의료윤리 갈등경험($p < .000$), 교육참여 의사($p < .05$)에서 차이를 보였고, 전공별 생명윤리인식은 치위생 전공보다 간호전공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장기이식의향($r = .299$), 윤리적 가치관($r = .122$), 생명의료윤리 교육경험($r = .356$)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계열 학생들의 대학 바람직한 생명의료윤리관 형성을 위한 기초교육으로 직업윤리교육을 통한 생명의료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생명의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과 향후 교육 방법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강혁준. 생명에 대한 윤리 신학적 고찰.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60>
3. 권호근. 치의학 교육과 치과의료 윤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2000.
4. Darby ML, Walsh MM. Dental hygiene theory and practice. 3rd ed, Saunders, St. Louis. 2010:5-8.
5. 진교훈 외 7인. 생명, 윤리와 정책.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7:16.
6. 안은숙.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갈등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7. 김윤정, 장윤정, 광준숙, 김수남.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2005;5(1):1-5.
8. 안용순, 김명희, 한지형. 치위생(학)과와 비보건계 학생들의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비교. 한국치위생과학회지. 2012;12(1):1-6.
9. 김윤정, 최정미. 일부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의 생명의료 윤리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7;7(4):433-439.
10. 권선주.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1. 홍영숙.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적십자간호대학 논문집. 1991;13:1-29.
- 2017;17(5):470-478.
12. 윤성욱. 치위생계열 학생과 비 치위생계열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한국콘텐츠학회지. 2017;17(5):470-478.
13. 강복희 원선애, 강현희.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수준 및 영향요인.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6;19(3):340-357.
14. 심형화. 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 한국위기관리논집. 2013;9(9):211-230.
15. 천세희, 이향연, 조미숙. 일부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윤리적 성향의 관계. 한국치위생학회지. 2014;14(6):813-820.
16. 조윤희. 경기도 지역 고등학생의 생명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 인식 조사. 성균관대학교 대

-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7. 정유석, 박석건. 새롭게 시작하는 의료윤리교육: 윤리교육 교육경험과 교육전후의 가치관의 변화. *한국의학교육*. 2000;12(1):97-105.
 18. 조영희. 융합 시대의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확인. *한국융합학회지*. 2017;8(10):359-369.
 19. 김미옥, 김경숙.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생명의료 윤리의식, 도덕적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한국 의료윤리학회지*. 2015;18(4):478-490.
 20. 문미영, 정애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및 생명 의료 윤리의식과의 관련성 조사 연구. *한국생명윤리학회지*. 2012;13(2):49-62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dental hygiene and nursing students

Ji-Young Lee · Mii-Kyoung Jeo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inju Health College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mong dental hygiene and nursing students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 education of biomedical ethic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he subjects include 158 and 128 students in the dental hygiene and nursing departments, respectively, at a university in Gyeongnam.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the SPSS 12.0 program.

1.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dental hygiene and nursing students scored mean 2.72 and 2.65 points in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respectively,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p < .000$).
2. In the subareas of biomedical ethics, the two groups showed the highest and lowest level of consciousness in organ transplant and euthanasia, respectively.
3. The two groups had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related to biomedical ethics by the major such as ethical values($p < .05$), experiences with biomedical ethics education($p < .01$), time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p < .001$), sources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biomedical ethics($p < .01$), experiences with conflicts in biomedical ethics($p < .000$),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education($p < .05$).
4. The nursing students recorded higher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tha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with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m.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ethical values($r = .122$) and experiences with biomedical ethics education($r = .356$).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content for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and research on its effectiveness to help dental hygiene students form desirable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Key Words : biomedical ethics,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dental hygiene student